

심성이 기자의 **핫템** **잇템** **웅진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

매트리스에 묵은 먼지 ‘싸악~’ 환절기 재채기가 줄어들었다

기자는 매년 환절기마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재채기와 콧물 때문에 삶의 질이 확 떨어진다. 집먼지 진드기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이불이나 매트리스의 청결이 중요하다고 의사에게 들었다. 최근 매트리스 청소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관심이 가던 차에 웅진코웨이의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다.



**먼지·비듬·진드기 사체 제거
청소 뒤엔 자외선 살균 소독도**

**코웨이 제품 안 써도 서비스 가능
월 1만4500원에 年 4회 이용**

매트리스를 청소해줄 임현균 홈케어 닥터가 집을 방문했다. 먼저 방수커버와 걸 커버를 벗긴 매트리스를 전용 청소기로 구석구석 밀었다(사진).
구매한 지 1년6개월 남짓 된 새 매트리스여서 사실 크게 오염됐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홈케어닥터가 기본 청소를 끝낸 뒤 보여준 먼지는 그만큼 충격적이었다. 지름 약 10cm의 하얀색 원형 종이 필터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3~4년 정도 사용한 매트리스의 오염도 수준이라고 했다. 먼지 먼지를 확대해 보여줬다. 각종 실타래와 섬유조각, 각질, 비듬, 집먼지, 진드기 등이 한 대 엉켜 있었다. 충격받은 기자에게 임현균 닥터는 “서비스를 처음 받아보는 고객은 다들 놀란다”며 “흰색은 비듬이고 작은 검은 점들은 진드기 사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드기의 사체나 배설물에 있는 ‘구아닌’이라는 물질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매트리스 청소를 마친 뒤 침대 프레임 세척에 들어갔다. 매트리스를 들어 올려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까지 솔 청소기와 흡입구가 좁은 특수 청소기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했다. 이후 프레임에 들어 올려 방바닥 청소까지 했다. 로봇청소기가 1주일에 한두 번 들락날락하며 청소하는 곳인데도 걸레로 닦으니 먼지가 제법 나왔다.

청소를 마무리한 뒤 집먼지진드기 기피제를 매트리스에 도포했다. 이후 자외선(UV) 살균기로 매트리스를 구석구석 소독했다.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받은 다음날 아침, 평상시보다 재채기가 줄어들었다는 게 느껴졌다. 3~4개월에 한 번 정도 서비스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바닥에 양말 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집에 들어서기 전 일회용 덧신을 신는 배려도 마음에 들었다.
웅진코웨이의 매트리스를 렌탈해 이용하는 고객은 4개월에 한 번씩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매트리스도퍼도 무료로 교체해준다. 코웨이의 매트리스를 쓰지 않는 사람은 케어 서비스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1년 멤버십에 가입하면 월 1만4500원을 내고 3개월에 한 번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 번 받을 때마다 약 4만 3500원인 셈이다. smshim@hankyung.com

기술보증기금, 석·박사 연구원 창업 활성화

기술보증기금은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과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R-테크벨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맺고 석·박사 연구원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기보는 협약 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인 연구원이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투자 등 금융 지원 △기술이전 △기업공개(IPO) 지원 등을 통해 연구소의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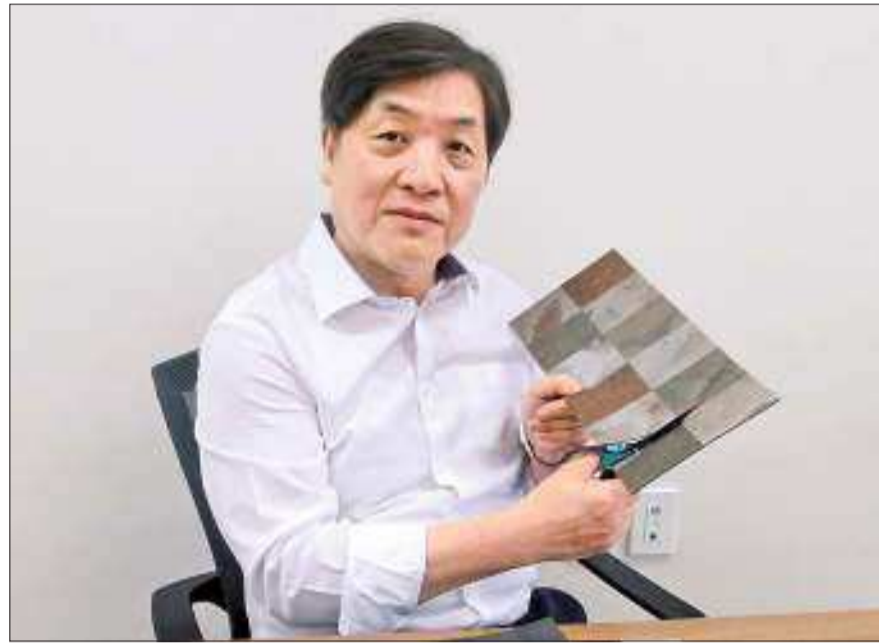


한 모든 과정을 복합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준 기보 이사는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인력의 창업을 촉진해 혁신 창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이 기자 smshim@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유니디자인 ‘리얼스톤 타일 스티커’

가위로 타일 스티커 싹둑... “인테리어 손쉽게”

중소기업 유니디자인이 지난 5월 ‘리얼스톤 타일 스티커’를 내놨다. 걸모습은 회색의 얇은 시트(모양지)처럼 생겼다. 표면 질감은 돌을 만지는 느낌 그대로다. 화강암 등 실제 돌을 얇게 잘라서 만들었다. 사용법도 간편하다. 가위로 잘라 거실이 나 주방 등에 붙이면 된다.



김형진 유니디자인 사장이 ‘리얼스톤 타일 스티커’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김형진 유니디자인 사장은 “주부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라며 “대형마트와 홈쇼핑은 물론 해외시장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IY 개념 적용한 타일 스티커 김 사장은 대학 졸업 후 제약회사 영업 사원으로 2년 일한 뒤 1993년 바닥재와 시트류를 수입하는 신대상사를 설립했다. 국내 처음으로 미끄럼 방지재(논슬립)를 도입하는 등 순항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때 유통의 한계를 절감하고 제조로 돌아섰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01년 회사명을 유니디자인으로 바꿨다. 대형마트에서 바닥재와 시트류, 야광 스위치스티커 등을 판매하다가 2014년 알루미늄 포일을 소재로 제작한 ‘보스타일’을 개발했다. 300도까지 견디면서도 행주로 쉽게 닦아낼 수 있는 타일이다.

**대리석·화강암 얇게 잘라 가공
표면 질감 실제 돌 느낌 살려**

**주방·욕실의 바닥벽에 부착 가능
가정 인테리어 비용·시간 단축
김형진 사장 “홈쇼핑 진출할 것”**

김 사장의 지론은 ‘트렌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얼스톤 타일 스티커는 지난해 초부터 개발에 나섰다. 1년6개월 만인 지난 5월에 제품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급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여러 번 실패했다. 이 제품은 돌 모양을 인쇄(프린팅)한

제품은 크게 바닥용과 벽면용으로 나뉜다. 바닥용은 신발로 밟아도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벽면용보다 3배 정도 두껍다. 물 청소도 가능하다. 벽면용은 얇은 만큼 뒷면에 모양을 유지하는 플라스틱 폼이 떠받쳐준다. 가위로 자를 수도 있고 모서리 부분에서는 깎을 수도 있다. 판매 제품(7900원) 크기는 가로 39cm×세로 15.4cm다. 모양은 제각각이고 디자인 특어도 출몰 중이다.

주방 거실 현관 욕실 등의 바닥이나 벽면에 인테리어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전문 시공사가 시공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길다”며 “가정에서 주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유니디자인

설립	2001년 4월(법인전환)
위치	경기 부천시 부천로
제품	리얼스톤 타일 스티커
특징	가위로 오려서 벽 등에 부착

◆‘임소문’ 타고 온 오프라인 판로 확장 유니디자인은 올 4월부터 국내외 전시회에 제품을 적극적으로 출품하고 있다. 7월 코리아빌드 전시회, 지난달 MBC건축 박람회와 일본 도쿄 DIY(Do It Yourself) 홈센터쇼, 기프트쇼 전시회 등에 참가했다. 기프트쇼 전시회에서 일본 바이어와 1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고 관련 객이 선정할 상도 받았다.

국내 판로도 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이마트 80여 개 매장에 제품을 납품했다. 자체 온라인 쇼핑몰(unidesign.com)도 열었고, 지마켓 쿠팡 등 온라인 몰에도 입점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홈앤쇼핑 등 홈쇼핑 방송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내년까지 국내 전시회에 참가해 제품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자체 공장도 보유해 제품 조달이 원활한 만큼 주부 수요층이 많은 홈쇼핑에 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thebest@hankyung.com)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진공포장기·생분해 거름망... ‘디테일’ 살린 주방용품 인기

뉴스카페

주방용품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디테일’에 신경 쓴 틈새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람들이 집안일을 하면서 겪는 소소한 불편을 포착해 센스있게 해결해주는 아이디어 제품들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같은 틈새 상품이 “삶의 질을 높여준다”며 임소문을 타고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파세코 ‘냉동 겸용 김치냉장고’ 코맥스산업 ‘데이킵스’

냉장고는 자칫 음식물의 ‘블랙홀’로 전락할 수 있는 곳이다. 코맥스산업은 소비자들의 이 같은 습관에 주목해 식재료 관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보관용기 ‘데이킵스’를 내놨다. 날짜와 내용물 등을 메모할 수 있는 ‘데이트 세팅 존’을 제품에 디자인한 게 특징이다. 냉장고 안쪽까지 활용할 수 있는 도어 전용 데이킵스, 신선

설거지를 마친 뒤 싱크대 거름망 틈새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것은 여간 성가시고 불편한 일이 아니다. 테바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바료독’은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싱크대 거름망이다. 음식물과 같이 거름망 통째로 ‘바료 독’ 하고 버려도 180일 뒤 생분해돼 환경에 무해하다.

아삭아삭하게 잘 익힌 김치를 먹고 싶지만 김치냉장고는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파세코가 ‘냉동 겸용 김치냉장고’를 선보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냉동 기능이 더해진 7L 미니 용량의 김치냉장고다. 김치 8포기가 들어갈 만큼 수납공간이 넉넉하다. 냉동 모드로 설정하면 -18도를 유지해 간편가정식과 육류 등도 보관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中企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기중앙회, 잡코리아와 협약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잡코리아와 ‘중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 스마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기관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스마트 일자리 찾기 및 알리기, 구인기업·구직자 간 매칭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협업,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세미나 등 중기 스마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낮은 인지도가 중소기업 인력난의 큰 원인이므로 스마트한 중소기업 일자리 알리기에 잡코리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구인중기청년구직자 매칭 고도화를 통한 미스매치 해소와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잡코리아와 협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감성에 디지털을 입혀라

30년 경력의 국내 최고 전문가의 충격적 조언

오전정 지음 | 16,000원

조류가 바뀌면 어종이 바뀌고, 어종이 바뀌면 어선을 바꿔야 한다

“당신의 비즈니스는 어떤 어선을 준비하고 있는가?”

Digital Transformation 감성에 디지털을 입혀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이라 한다. 하지만 위험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불행과 디지털 혁신이라는 두 개의 파도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려면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놀릴 것인가 누릴 것인가. 당연히 우리의 답은 감성(강점)에 디지털을 입히는 방법으로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류가 바뀌면 어종이 바뀌고, 어종이 바뀌면 어선을 바꿔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생태계의 변화를 인식하고, 미래에는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감성에 디지털을 입히는 방식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리본과 임소문 현주용 기디디입니다. 이메일 likesmile@hankyung.com